

선원대표와 첫 상견례, 선원복지 등 현안논의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선원노련 의장단 간담회 개최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(목) 선사 대표단 간담회에 이어 1월 23일(화)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(이하 선원노련) 의장단과 첫 상견례를 가지고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했다.

이번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3명이 참석하였으며, 지난해 11월 6일(월) 15년 만에 이루어낸 노-사-정 공동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실천 노력을 공유하고 선원복지 등 최근 선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.

강 장관은 “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우리 경제의 핵심 인력인 선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.”라며, “정부는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선원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계속 소통하겠다.”라고 의지를 밝혔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민석	(044-200-5740)
		담당자	사무관	류충현	(044-200-5742)